



numbers  
vol. 237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무종교인 10명 중 4명, '신' 또는 '초월적 힘' 믿어!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인구 특성
- ② 한국인의 게임 이용 실태

2024. 4. 23.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무종교인 10명 중 4명, ‘신’ 또는 ‘초월적 힘’ 믿어!

우리 연구소가 작년 10월에 실시한 2023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인구 중 무종교인 비율은 63%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탈종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무종교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종교인은 과연 종교와는 무관할까?

이번 넘버즈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실시한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종교적 의식, 영적 의식 측면에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목할 결과로 무종교인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으나, 4명 중 1명(24%)은 스스로 신성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4명(38%)은 ‘신’ 또는 ‘초월적 힘’을 믿고 있었다.

\*넘버즈 224호 참조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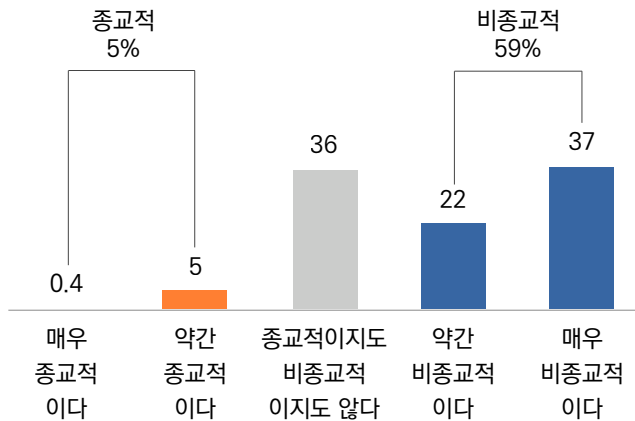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무종교인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방법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 결과를 토대로 무종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조사 기간	2024년 1월 31일 ~ 2월 13일 (14일간)
조사 의뢰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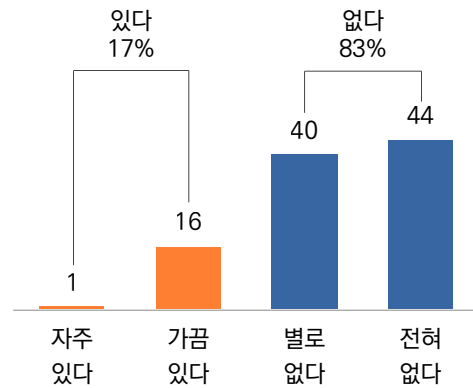
## [무종교인의 종교적 특징] 종교에 관심있는 무종교인 17%!

- 무종교인들에게 본인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스스로가 '종교적'이라고 인식한 비율은 5%에 그쳤고, '비종교적'이란 응답이 59%로 과반, '종교적이지도 비종교적이지도 않다'는 36%였다.
- 현재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무종교인의 17%만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고, 대부분(83%)은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 무종교인의 17% 정도가 향후 종교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주관적 종교성 평가(무종교인, %)



[그림] 종교에 대한 현재 관심도(무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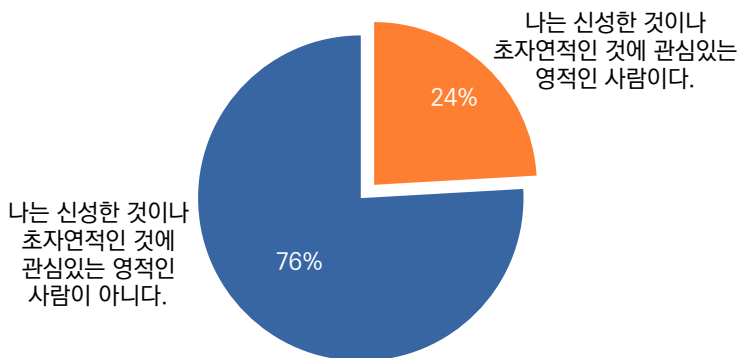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무종교인 4명 중 1명, 나는 영적인 사람!

- 이번에는 무종교인이 본인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스스로 신성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있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로 무종교인 4명 중 1명 정도였다.

[그림] 주관적 영성 평가(무종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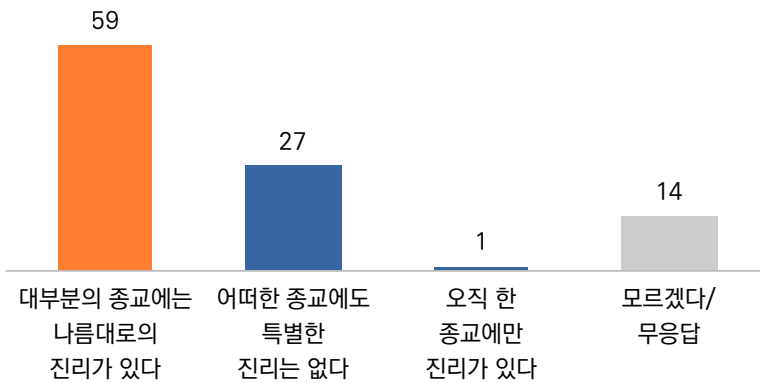
# 02

## [무종교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 무종교인 10명 중 6명, '대부분의 종교는 진리가 있다'!

- 무종교인들은 종교와 진리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가 59%로 종교 다원주의적 견해가 가장 강했고, '어떠한 종교에도 특별한 진리는 없다'는 입장이 27%였다. '오직 한 종교에만 진리가 있다'는 1%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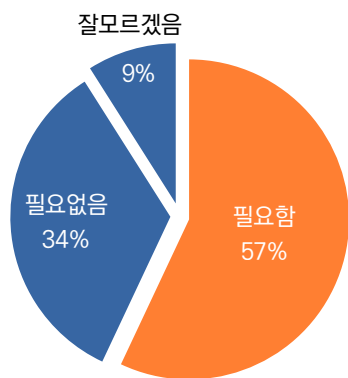
[그림] 종교와 진리의 관계 (무종교인, %)



## 우리 사회에 종교가 필요하다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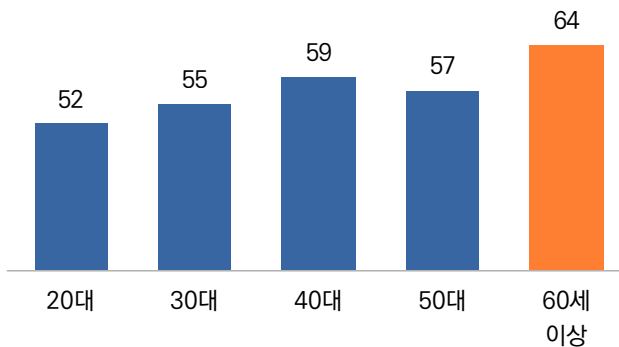
- 우리 사회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무종교인의 57%인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 없다' 34%, '잘 모르겠다' 9%였다. 종교를 믿지 않지만 종교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종교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종교의 사회적 필요성\* (무종교인)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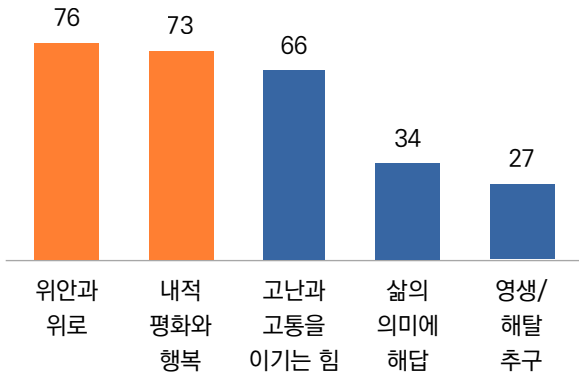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종교의 사회적 필요 인식 (무종교인, '매우+약간 필요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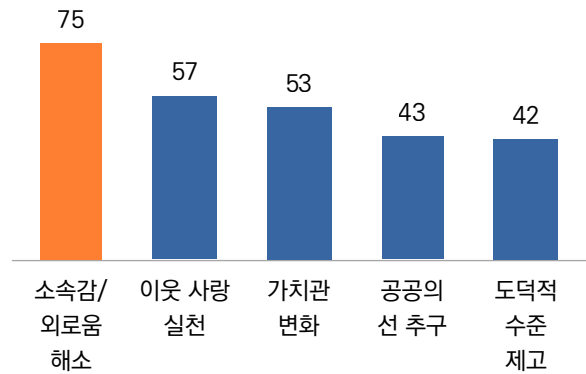
## 무종교인이 생각하는 종교의 역할, '소속감/외로움 해소'!

- 무종교인이 생각하는 종교의 유익은 무엇일까? '위안과 위로'에 대한 동의율이 76%로 가장 높았고, '내적 평화와 행복' 73%,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 66% 순이었다. 반면, '삶의 의미에 해답(34%)', '영생/해탈 추구(27%)'는 낮은 동의율을 나타내, 현실의 '위로와 평안'에 대해서는 종교의 유용성을 인정하나 '삶의 의미나 영생'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낮았다.
- 종교의 역할로는 '소속감/외로움 해소'가 75%로 가장 높게 응답해 사회적 이슈인 '외로움/고독사 문제 등'에 교회/종교단체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림] 종교의 유익 (무종교인, '매우+약간 동의' 비율\*, %)



[그림] 종교의 역할 (무종교인,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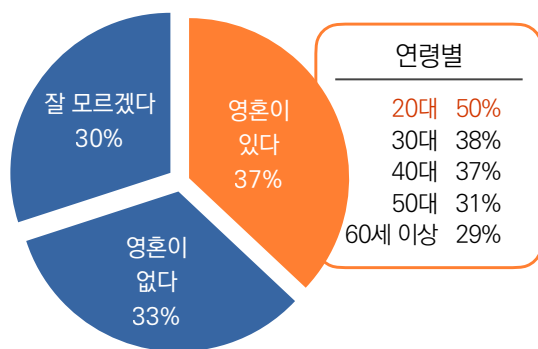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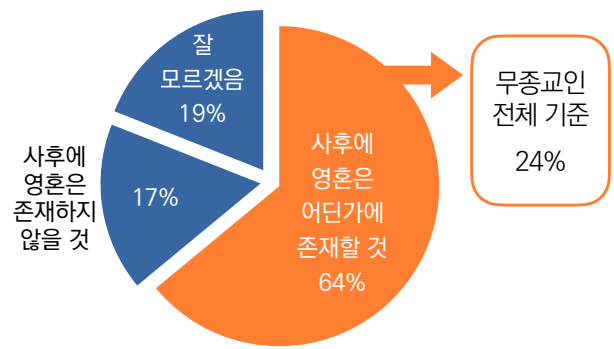
## 03 [무종교인의 초자연적 개념 인식] 무종교인 37%, '영혼이 있다'!

- 무종교인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을까? '영혼이 있다'는 37%, '영혼이 없다' 33%로 엇비슷하게 응답했다. '영혼이 있다'는 믿음은 20대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 이번에는 '영혼이 있다'고 응답한 자들에게 '사후 영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사후에 영혼은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란 비율이 64%로 '사후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을 것'(17%)이라는 응답 대비 훨씬 높았다. 사후에 영혼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인식을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24%로, 무종교인 4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그림] 영혼에 대한 믿음 (무종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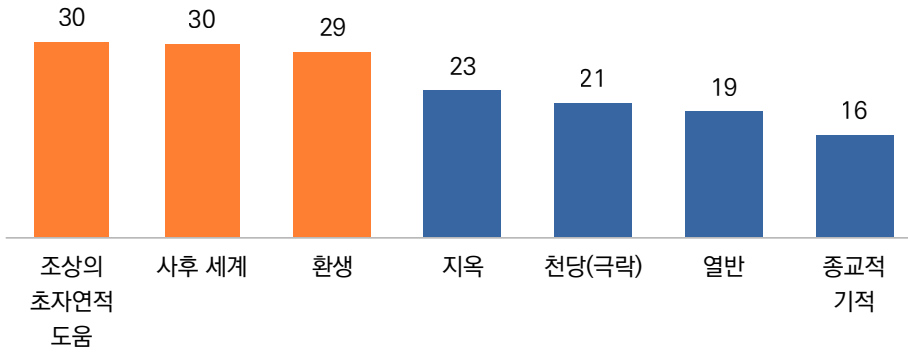
[그림] 사후 영혼에 대한 생각 (영혼 있다고 믿는 무종교인)



## 무종교인의 20~30%, ‘조상 도움’, ‘사후 세계’ 등 초자연적 개념 믿어!

- 무종교인들은 사후 세계, 천당과 지옥 등 초자연적 개념을 믿을까? 초자연적 개념들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믿는지를 물은 결과, 전반적으로 무종교인의 20~30%가 초자연적 개념에 대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상의 초자연적 도움’, ‘사후 세계’, ‘환생’을 ‘믿는다’는 비율이 ‘지옥’, ‘천당’ 등 구체적인 종교적 사후세계를 믿는다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초자연적 개념에 대한 믿음 (무종교인, ‘매우+약간 믿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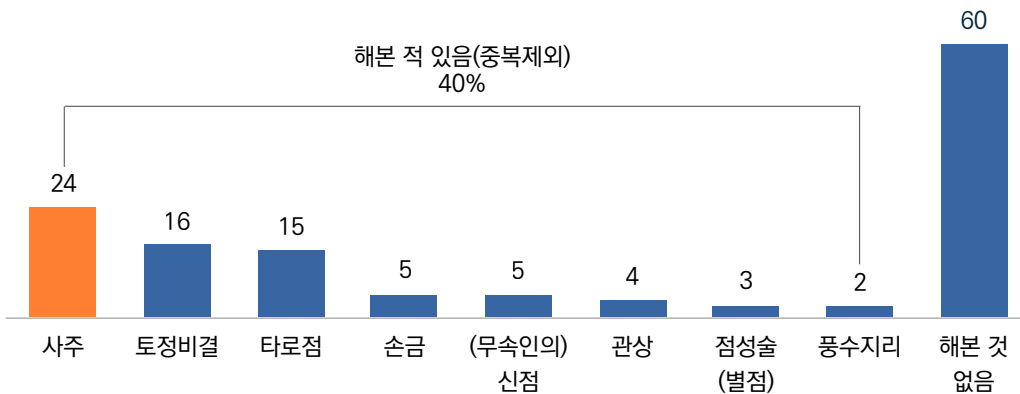


\*4점 척도

## 무종교인의 10명 중 4명, 무속/미신 행위 경험 있어!

- 최근 1년 내 사주, 점 등 무속/미신 행위 경험에 대해 무종교인의 40%가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적지 않은 무종교인들이 무속/미신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이 하는 행위로는 ‘사주’(24%)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토정비결’(16%), ‘타로점’(1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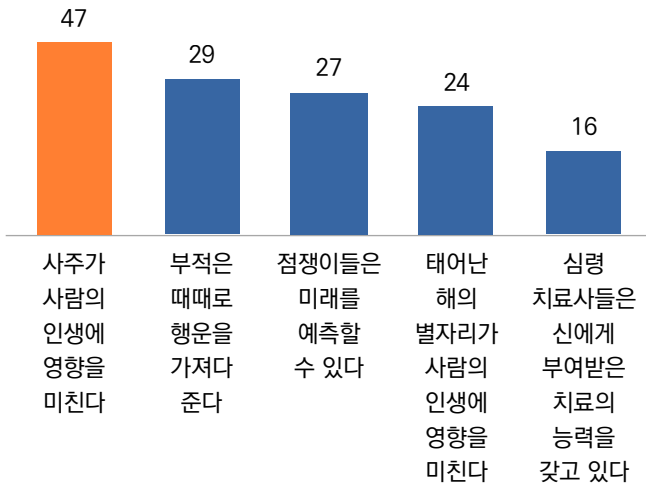
[그림] 무속/미신 행위 경험 (무종교인, 최근 1년 기준, 중복응답, %)



## 무종교인의 절반 가까이, 사주가 인생에 영향 미친다고 인식!

- 이번에는 무속/미신에 대한 다양한 속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물어본 결과, '사주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동의율은 47%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고, '부적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와 '점쟁이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에는 각각 29%, 27%가 동의했다.
- 사주, 부적, 점 등 동양 무속/미신에 대한 동의율이 별자리, 심령치료사 등 서양의 무속/미신에 대한 동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 특히 부적이나 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무속/미신에 대한 인식 (무종교인, '매우+약간 동의' 비율\*,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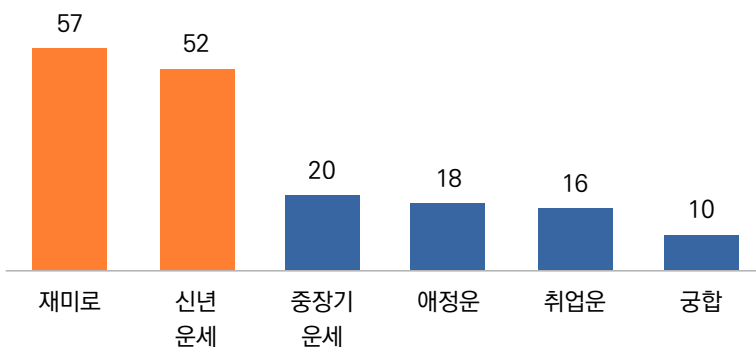
[표] 연령별 무속/미신에 대한 인식 (무종교인, '매우+약간 동의' 비율\*)

연령	부적은 때때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	점쟁이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20대	42%	35%
30대	32%	25%
40대	26%	30%
50대	21%	22%
60세 이상	22%	20%

## 무종교인의 무속/미신 행위 이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

- 무속/미신 행위 경험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재미로' 봤다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년 운세' 52%, '중장기 운세' 20%, '애정운' 18% 등 운세에 관련된 것이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읽을 수 있다.

[그림] 무속/미신에 행위 이유 (무속/미신 행위 경험자, 중복응답,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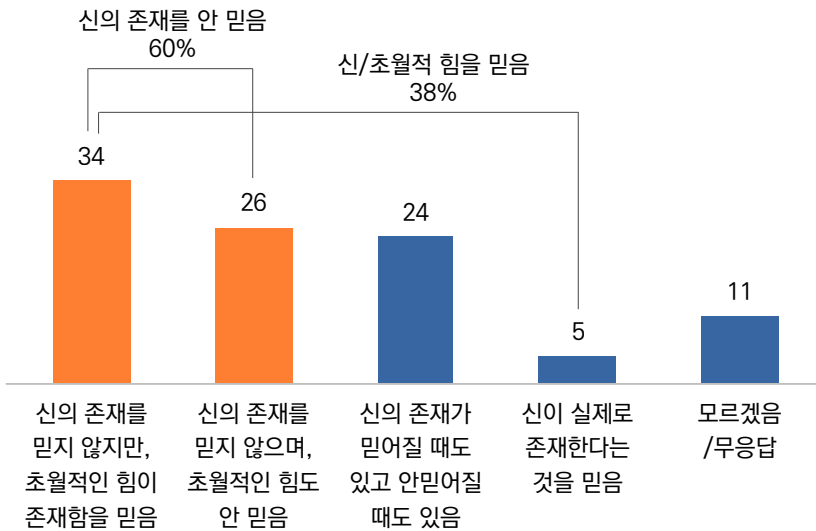


# 04

## [무종교인의 종교적 경험과 인식] 무종교인 10명 중 4명, '신' 또는 '초월적 힘' 믿어!

- 신에 대한 무종교인들의 생각을 묻은 결과, '신은 안 믿지만 초월적인 힘이 존재함을 믿는다' 34%, '신의 존재 믿지 않고, 초월적인 힘도 안 믿는다' 26%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가 10명 중 6명(60%) 정도였다.
- 반면, '초월적인 힘의 존재' 혹은 '신의 존재'를 믿는 경우는 38%로 나타나 현재 무종교인이더라도 10명 중 4명은 신 또는 초월적 힘의 존재는 믿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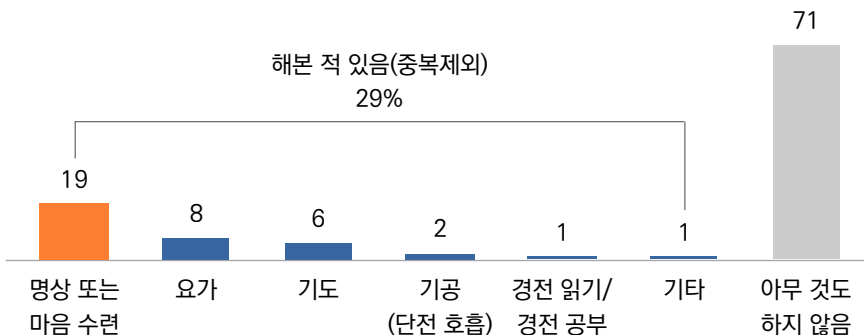
[그림] 신에 대한 생각 (무종교인, %)



## 무종교인 10명 중 3명, 종교적 행위 경험 있어!

- 평소 종교적 혹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명상', '기도' 등 종교적 행위를 하는지를 물었더니 무종교인(응답자)의 71%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29%인 10명 중 3명꼴로 종교적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중 '명상/마음 수련' 비율은 19%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를 믿지 않지만 평소 기도를 하는 사람은 6% 정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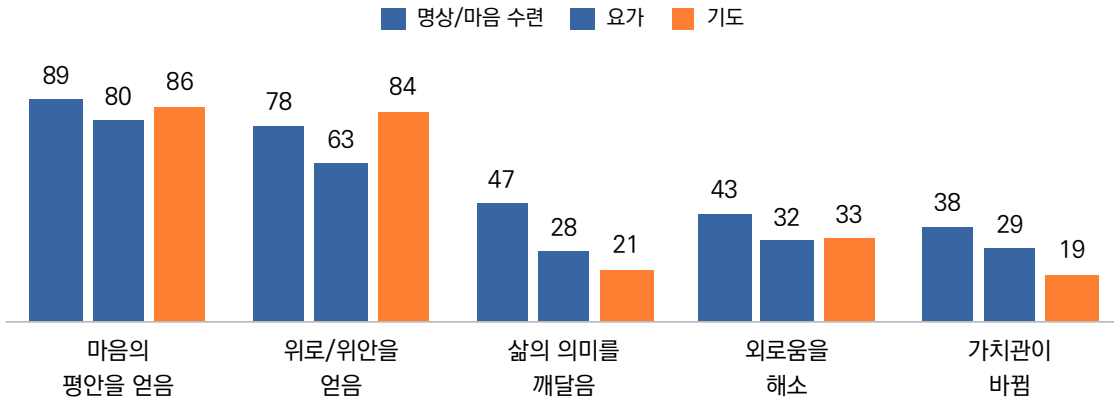
[그림] 평소 종교적 행위 여부 (무종교인, 중복응답, %)



## 명상/요가/기도 경험자 대부분, '마음의 평안' 얻어

- 명상, 요가, 기도 등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해당 경험이 있는 무종교인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명상/마음 수련', '요가', '기도' 등 모든 행위에서 '마음의 평안'이 80% 이상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위로/위안'이 차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삶의 의미', '가치관의 변화' 등 종교의 본질적인 유익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종교적 행위의 유익 (각 행위 경험 무종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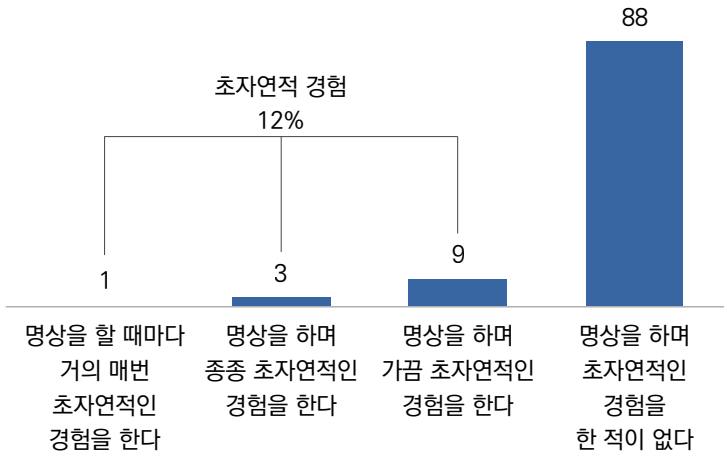


\*4점 척도

## 명상 경험 무종교인의 12%, 명상 중 초자연적인 경험 했다!

- 이번에는 평소 명상(또는 마음 수련)을 하고 있는 무종교인에게 초자연적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대다수(88%)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지만, 12%는 명상 중 초자연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명상을 통한 초자연적 경험 (명상/마음 수련 하는 무종교인, %)



이번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들의 38%는 '신' 또는 '초월적 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이다. 흔히 무종교인이라고 하면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무종교인이라고 해서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신을 믿지 않는다(항상 안 믿음+과거에 믿었으나 현재 믿지 않음)'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모르겠다'는 응답이 38%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유보자들을 포함하면 절반 가까이 적극적으로 신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영혼에 대한 생각은 더 수용적이다. 영혼이 있다는 응답이 37%였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비율이 33%였는데, 이것은 종교 차원에서 신을 믿지는 않더라도 영적인 차원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데 무종교인들의 종교적 관심은 기존 종교나 제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이었다. 무종교인들은 '종교가 없지만 신성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데 4분의 1인 24%가 동의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종교를 가졌다가 종교를 떠난 사람들은 가장 큰 이유로 3분의 1 이상(38%)이 '종교의 틀에 얽매이기 싫어서'라고 응답하여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호감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성 종교나 제도 종교에는 큰 관심이 없지만 이와는 다른 '영적'이라는 단어에는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종교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아서 '종교적'인 것이 곧 '영적'인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 혹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종교 관련 행위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로 3분의 1 가까이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명상 또는 마음 수련(19%)이 가장 많았고, 요가, 기도, 기공, 경전 읽기 등을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최근 시대 변화에 따라 여러 종교에서 외향적인 활동보다 내면을 강조하는 명상이나 영성 수련을 많이 하는 것에도 관련될 것이다. 명상이나 마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월 1회 이상이 61%로 비교적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가는 월 1회 이상이 8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무종교인임에도 종교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무종교인이 관심 갖는 종교성은 일반 종교인들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종교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위안(76%)과 평화와 행복(73%), 고난 극복(66%)에 도움이 된다는 데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나 '삶의 의미'(34%), 영생이나 해탈(27%)에는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곧 심리적, 정서적인 기능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종교 본연의 기능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았다. 종교 행위를 통해 얻는 유익에 대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든지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는 심리적인 효과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많았으나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든지 '가치관이 바뀌었다'와 같이 종교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효과는 높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의 무종교인들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종교성'보다는 종교를 통한 심리적 평안을 추구하는 도구적 특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종교인들을 선불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노력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들은 기성 종교에 실망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제도화된 형태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개별화된 영성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종교 전통이나 교리를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관심이나 취향에 따라 폭넓은 영적인 차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을 강하게 기독교 영성이나 교회 안으로 포섭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하거나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성에 대한 이들의 관심 자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이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 무종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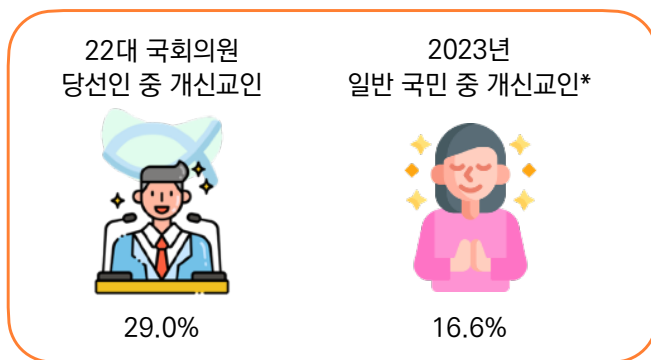




##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인구 특성]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개신교인 29%!

- 4.10 총선이 끝나고 이제 5월 30일이면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의 인구 특성을 살펴본다.
- 최근 발표된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3명(29%)이 개신교인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대외적으로 신앙을 밝힌 당선인을 중심으로 집계한 결과 총 87명이 개신교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선인 300명 중 29%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 이와 같은 국회의원 당선인의 개신교 비율은 2023년 기준 일반 국민 중 개신교인 비율 16.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그림] 개신교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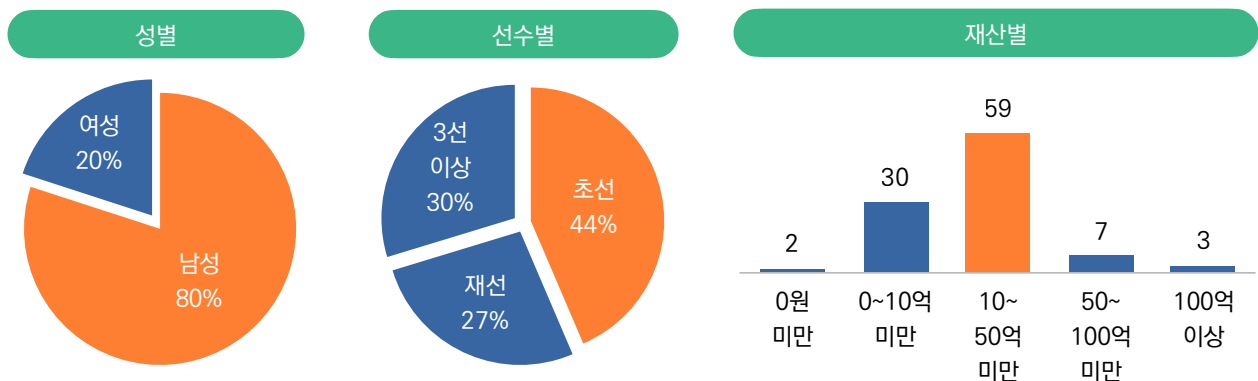
※출처 : 국민일보, '국회의원 당선인 29%가 개신교인... "악법 저지 방파제 될 것"', 2024.04.18.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3345402>)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2023.

##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여성 20%, 초선 44%, 재산 10억 이상 68%!

- 당선인의 성별로는 남성 80%, 여성 20%로 여성 당선인이 역대 최다 비율을 기록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4%, 2023 예정통합 여성총대 비율은 3%이다.
- 선수별로 보면 초선이 44%로 가장 많았고, 3선 이상 30%, 재선 27%로 조사됐다.
- 재산의 경우 '10~50억 미만'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10억 이상'은 68%, '50억 이상' 자산가도 10%로 조사됐다.

[그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인구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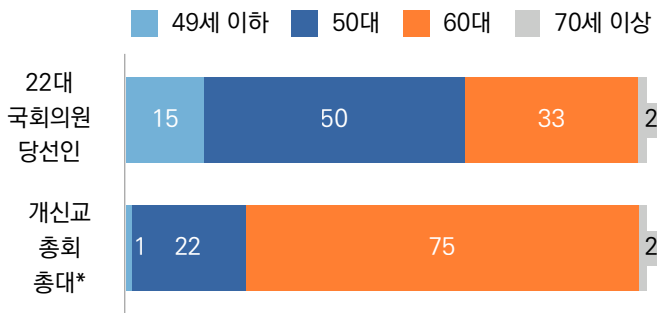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4·10총선]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연령 56.3세...초선은 131명', 2024.04.11.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63000001?input=1195m>)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평균 연령 비교, 국회의원 56.3세 vs 개신교 총대 62.6세!

- 국회의원과 총회 총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둘 다 대의제를 따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민(교인)이 선출한 대표 자로서 국민(교인)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정책(교단 총회의 의사·정책) 등을 결정하는 구조를 띠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22대)’ 당선인과 교회의 대표 격인 ‘총대(105회 예정통합 기준)’의 평균 연령과 연령별 구성을 비교해 보았다.
- 연령별로 보면 이번 국회의원 당선인은 50대가 절반(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33%, 40대 이하 15% 등의 순이었고, 개신교 총대의 경우 60대가 75%로 전체 4명 중 3명에 달했고, 다음으로 50대 22%, 70세 2% 순이었다.
- 평균 연령으로 국회의원은 56.3세, 개신교 총대 62.6세로 총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연령별 구성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vs 개신교 총회 총대 (%)



[그림] 평균 연령

: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vs 개신교 총회 총대



※출처 : 연합뉴스, [4·10총선]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연령 56.3세...총선은 131명, 2024.04.11.(<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63000001?input=119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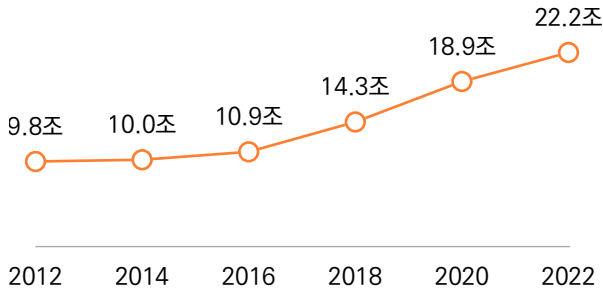
\*예정 통합 105회 총대 연령 분포(2020년) 기준. (예장뉴스, 2020.0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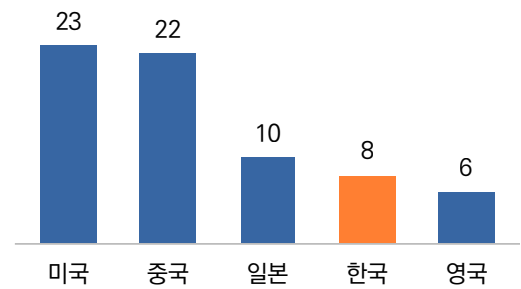
## [한국인의 게임 이용 실태] 국내 게임 시장, 2022년 22.2조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성장!

-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게임’이 PC, 모바일의 높은 보급률, 인터넷·IT 발달 등으로 높은 경제성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자료를 통해 국내 게임 시장의 성장과 위상, 그리고 국민 이용 실태를 알아본다.
-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는 2012년 9.8조에서 10년이 지난 2022년 기준 22.2조로 2배 이상 커졌으며, 한국의 세계 게임시장 점유율은 8%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그림] 국내 게임 시장 규모 (매출액 기준, 원)



[그림] 게임 산업 국가별 점유율 (2022,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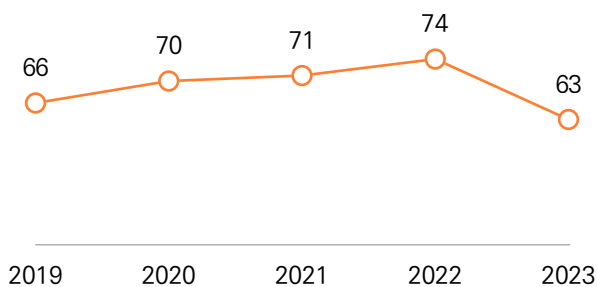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4.02.29.

## 우리 국민의 게임 이용률 63%, 5년 만에 증가세 꺾여!

- 우리 국민의 지난 5년간의 게임 이용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9년 66%에서 코로나 시기 서서히 증가세(2020년 70%, 2021년 71%, 2022년 74%)를 보이다가 2023년 63%로 2019년 수준 밑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게임 이용률\* (지난 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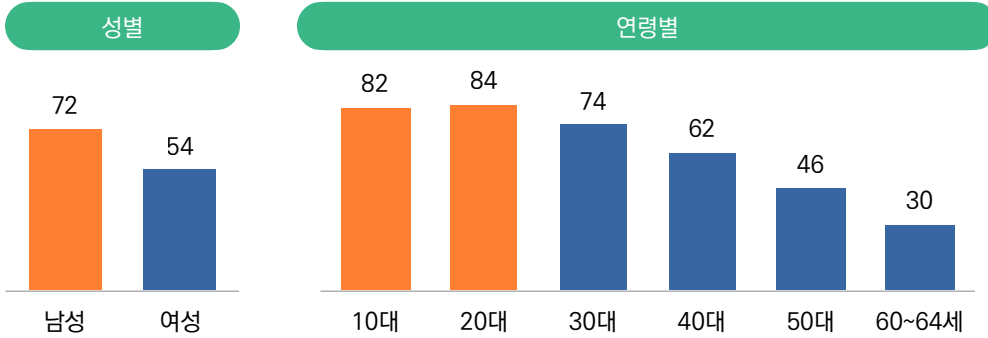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4.02.29. (전국 만 10세~64세 국민 10,000명,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 병행, 2023.06.08.~07.13.)

\*PC, 모바일, 콘솔(비디오 게임, 휴대용 게임기 포함) 게임, 아케이드(오락실) 게임, VR 게임 이용 기준

## 40대 10명 중 6명은 게임 이용자!

- 최근 1년 동안의 게임 이용률을 성·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 72%, 여성 54%가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가 80% 이상으로 젊은 층일수록 게임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40대도 62%인 10명 중 6명이 최근 1년 내 게임을 이용했고, 50대도 절반 가까운(46%) 이용률을 보였다.

[그림] 성·연령별 게임 이용률 (2023, 지난 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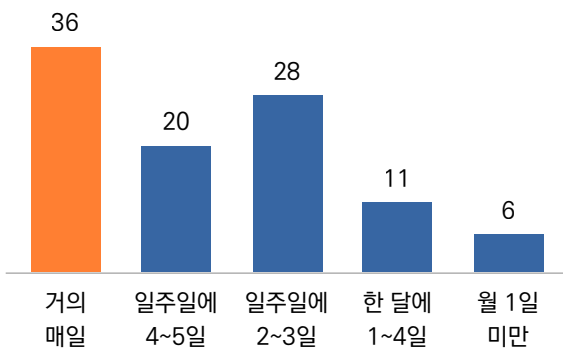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4.02.29. (전국 만 10세~64세 국민 10,000명,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 병행, 2023.06.08.~07.13.)

## 모바일 게임 이용자 3명 중 1명 이상, 거의 매일 게임 해!

- 국내 게임 플랫폼 점유율이 가장 높은 모바일 게임(점유율 64%) 기준으로 이용 실태를 살펴본다. 모바일 게임 경험자에게 평소 모바일 게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묻은 결과, '거의 매일'이 36%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2~3일' 28%, '일주일에 4~5일' 20% 등의 순이었다. 모바일 게임 이용자 3명 중 1명은 거의 매일 게임을 즐기는 셈이다.
- 이번에는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1회 기준)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를 물었더니 '주중' 평균 1시간 7분, '주말' 평균 1시간 31분으로 나타났다. 한 번 모바일 게임을 시작하면 최소 1시간 이상은 한다는 얘기이다.

[그림] 모바일 게임 이용 빈도 (게임 이용자, 2023, %)



[그림] 1회 기준 평균 모바일 게임 시간 (게임 이용자, 2023)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4.02.29. (전국 만 10세~64세 국민 10,000명,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 병행, 2023.06.08.~07.13.)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81호\(2024년 4월 3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평가, 의정 활동 기대 당선인

###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기관\) 리포트 제120호\(2024년 4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선거 영향 요인, 선거 관련 여론조사 영향력, 선거 결과 평가

## 사회 일반

### [성인 10명중 6명,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독서를 최저치 경신](#)

연합뉴스\_2024.4.18.

### [출산율 반등 희망인가... "자녀계획 있다" 젊은층 늘어났다](#)

연합뉴스\_2024.4.17.

### [세월호 10주기 인식 조사...60% "안전하지 않아"](#)

KBS뉴스\_2024.4.17.

### [인공지능, "충격적 속도"로 인간을 앞서고 있다](#)

한겨레\_2024.4.19.

### [2024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4.19.

### [지난해 신규 등록 장애인 8만 6287명...70대 가장 많아](#)

데이터숨\_2024.4.22.

### [농가인구 절반은 65살 이상...가구당 매출 1천만원 밑이 65%](#)

한겨레\_2024.4.19.

### [국내 인터넷산업 규모 600조원 돌파...종사자 186만명](#)

연합뉴스\_2024.4.22.

## 경제 · 기업

### [월급 100만원 깎고 주4일 vs 안깎고 풀재택 주5일...여러분의 선택은?](#)

매일경제\_2024.4.15.

### [빚, 소득 하위 20%만 증가...남들은 고금리에 갚았는데](#)

한겨레\_2024.4.17.

### ["외국인이 나보다 더 많이 버네"...3명중 1명, 월급 300만원 이상](#)

매일경제\_2024.4.17.

### [한경협 "국민 10명 중 6명, '기업가 정신 낮다' 자평"](#)

조선비즈\_2024.4.16.

### [청년 중소기업 기피...대기업과 임금 격차 2배·근로조건 열악](#)

연합뉴스\_2024.4.22.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직장인도 전문직 도전... 노무사 응시 3배·감정평가사 4배 늘어](#)

조선일보\_2024.4.16.

## [가사·육아 부담에...기혼여성은 돈보다 집 근처 직장 택했다](#)

한겨레\_2024.4.16.

## 국제 · 환경

### [“이거 참 좋더라”... 7080 은퇴 선배들이 원하는 ‘돈·삶·몸’](#)

조선일보\_2024.4.15.

### [두개의 전쟁...세계 군비지출, 9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

연합뉴스\_2024.4.22.

### [“한국인 10명 중 8명, 한중 관계 개선 원한다”..中관영지 조사 결과](#)

문화일보\_2024.4.18.

## 건강

### [눈 앞이 깜깜...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시력장애 생긴다](#)

헬스조선\_2024.4.22.

### ["요즘 2030 관절, 60대 수준"...요가·필라테스·등산의 배신](#)

중앙일보\_2024.4.21.

## 기독교 · 종교

### [국회의원 당선인 29%가 개신교인... “악법 저지 방파제 될 것”](#)

더미션(국민일보)\_2024.4.18.

### [무종교인 37% “영혼은 있다”... “종교, 사회적으로 필요” 57%](#)

더미션(국민일보)\_2024.4.22.

## 기획기사 : [마음 성적표 F-지금 당장 아이를 구하라], 서울신문

[ADHD의 습격, 학교가 아프다](#) \_2024.2.26.

[못 따라오는 학생... 배제시키는 韓, 맞춤 교육하는 美](#) \_2024.2.28.

[“문제아라 불린 내 아이... 편견에 갇혀 ADHD 진단받기 주저했다”](#) \_2024.2.28.

[‘금쪽이’ 도와주면 달라지는데... “매뉴얼 없이 교사 헌신에만 의존”](#) \_2024.3.5.

[한국형 ‘ADHD 교육 매뉴얼’ 발간... 교실 내 갈등 해소 출발선 그었다](#) \_2024.3.7.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획기사 : [칸칸 차이나], 서울신문

- [1. 400조 원짜리 '시진핑의 도시' 송안신구... 대홍수 속 홀로 생존한 이유는? \\_2023.9.4.](#)
- [2. 인구 14억명 다 알아보는 중국 '안면인식 빅브러더'... 정말 없앨까? \\_2023.10.23.](#)
- [3. "도민준 닮은 시진핑"...중국 한류, 7년 한한령 뚫고 영광 되찾나 \\_2023.11.13.](#)
- [4. "더러운 중국 화장실" 오명 벗자...시진핑 '화장실 혁명' 절반의 성공 \\_2023.12.25.](#)
- [5. "돌아가도, 남아도 일자리는 없다"...해외 중국 유학생 '시련기' \\_2024.1.15.](#)
- [6. '굴기'는커녕 '추락'하는 중국 축구... 부동산과의 '잘못된 만남' \\_2024.2.5.](#)
- [7. 중국 결혼 문화의 적폐 '신부 값', 아무리 때려잡아도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는 \\_2024.3.4.](#)
- [8. "한국 갈 이유 있나요"...중국 MZ '인증샷 성지' 떠오른 연변대 '한귀창' \\_2024.3.25.](#)
- [9. 중국 인구 14억→5억 된다... 한국 바짝 따라온 중국 저출생 대안은 \\_2024.4.15.](#)

## 기획기사 : [우리 시대, 어른을 찾아서], 브라보마이라이프

- [우리 시대 어른 누구?... 성인 40% “어른 필수 덕목은 책임감” \\_2024.4.2.](#)
- [5060세대 75% “젊은 세대에게 존경 못 받아” \\_2024.4.2.](#)
- [10년 전보다 5060과 2030 갈등 더 커져... “소통해도 가치관 차이가 걸림돌” \\_2024.4.3.](#)
- [5060세대 “존경 못받아” · 자녀세대 67% “부모 존경해” 시각차 \\_2024.4.3.](#)
- ["가치관 주입이 가장 문제" 이구동성... 기성세대 관행 탈피해야 \\_2024.4.2.](#)
- [5060세대 42%, “젊은 세대 존경 받고 싶어 소통 노력” \\_2024.4.4.](#)

# 후원

##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벚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총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신규 후원

이리신광교회 (담임목사 권오국)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 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연구소 소식. 다음주 [넘버즈] 휴간 안내

- 다음 주(4월 30일)는 5주 차(화요일 기준) 연구주간으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